

##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온라인으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0.07 22:11

학교로 찾아가는 온라인 공연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리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온라인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등 8작품 제공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리

(인천=김정호기자)코로나19로 인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지원과 학생들의 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7일 오페라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외 체험활동의 불가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뜻을 함께한 공연단체와 기획 및 제작했다.

클래식 메이크스의 안희도 대표는“이런 공연의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인천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단원 모두가 매우 기쁘게 참여하였다.”라고 말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채한덕 관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공연문화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인천의 학생들이 미래의 바른 인성을 지닌 동아시아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오는 11월까지 비보잉 퍼포먼스 등 7작품을 추가로 제작해 인천의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